

사회

# 관대한 성범죄 처벌 재범 부추긴다

## 초범들 피해자 가족과 '합의'땀 대부분 점유... 새 양형기준 시급

통영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 등 성범죄가 극심해 가운데 초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범은 피해자 및 가족과의 합의나 자백, 술에 취한 심심미약 상태 등이 고려돼 법원의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 징형유예형을 선고받는다. 또 전자 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다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특히 성범죄 재범률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

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등 4건의 성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 가운데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만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불구속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나 법원의 영장 발부를 피해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날 재판부는 17세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폭행하려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서만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계속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와 600만원에 합의를 했고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나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A씨와 유사한 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해 말 장애인 및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국민의 법감

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합의 유무'가 지나치게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내 한 여성 변호사는 "합의는 곧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사고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 있으며, 이는 재판부가 합의 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뒤 전격적 감안하면 A씨와 유사한 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해 말 장애인 및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국민의 법감

# 며칠씩 불꺼진 고급 아파트 '스파이더맨' 빈집털이 극성

## 남부경찰, 10대 6명 검거

휴가철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잇따르고 있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예상된다.

광주남부경찰은 24일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19)군 등 6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21일 밤 9시에 광주시 남구 봉산동 임도(55)씨의 아파트에서 현금 등 3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각을 조사 결과 이들은 며칠씩 밤

시간대에 불이 켜지지 않은 고급 아파트를 밤방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빈집으로 들어갔다. 이날 순경찰서도 아파트에서 고급 자전거를 훔친 김모(18)군과 백모(여·18)양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1시경 순천시 해룡면 한 아파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신악을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절도범이 저층 아파트와 원룸을 주로 노리기 때문에 집을 비울 때는 창문과 베란다 등도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올레길 관광객 살인 현장검증** 제주동부경찰이 24일 서귀포시 성산을 시흥리 올레길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여성관광객 살해사건의 용의자 강모(46)씨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우측의 숲처럼 보이는 곳은 피해 여성의 시신이 유기돼 있던 대나무 밭이다. 경찰은 이날 강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성폭력 수배자 8명 검거 나서

## 광주경찰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광주 경찰이 관내 성폭력 수배자에 대한 일제 검거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기간, 성추행 등 성폭력 수배자 8명에 대한 일제 검거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서별로 1:1 추적반을 투입해 수배자 전원을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 폭염 속에 문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

폭염 속에 문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휴가철 피서객을 노린 성범죄 등 각종 성폭력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안병감 수사과장은 "성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성폭력 수배자를 조기 검거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 초중고 안전관리 점검

경남 통영의 초등학교 한아름양이 등 곳곳에 동네 주민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학생안전강화학교' 1606곳의 폐쇄회로(CC)TV 관리 실태 등 경비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활용 현황 등이다.

/연습스

# "벌집 좀 제거해 주세요"

## 광주·전남 폭염속 신고 급증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불볕더위 속 광주와 전남 지역에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시·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역서 119구조대가 출동, 벌집을 제거한 건수는 41건에 달했다. 지난 22일은 17건, 21일은 27건에 이르렀다.

전남지역 역시 벌집 제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오전 8시58분께 보성군 벌교읍 추동터 한 버스정류장에 '위험한 벌집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보성 지방에서만

총 17건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집 민원은 총 391건으로 하루 평균 130건을 넘고 있다.

소방당국은 벌 쏘임 피해예방을 위해 해서는 주변에 청량음료, 수박 등 단음식을 두지 말고 야외활동 땀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깔의 의복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풀려 올 때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추위폭력 50대 검거

진도경찰은 24일 술에 취해 식당 업주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임모(54)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는 등 전과 25범인 임씨는 이곳 식당에서뿐 아니라 진도읍 다른 식당에도 무단 침입해 술을 깨내 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백현영기자 hypark@

## 2PM 다크 음주운전 접촉사고

○유명 아이돌 그룹 2PM의 다크이 24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다크은 이날 새벽 2시45분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폴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6%로 밝혀졌다는 것.

○니콘은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참여한 공연 연습 후 회식 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JYP측은 서둘러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주력.

/연합뉴스

# 하마터면 ... 무인도서 조개잡이 고립 고교생 6명 구조

친구들과 조개잡이를 하던 고등학생 6명이 무인도에 고립됐다. 가해형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24일 오후 1시15분경 서안군 임자면 대광 해수욕장 맞은편 상태도(일명 무타리섬)에 고립된 정모(18·광주시)군 등 고등학생 6명이 해경 안전관리요원에 구조됐다.

정군 등은 이날 11시경 썰물 때 섬으로 들어가 2시간여 동안 조

## 개잡이, 낚시 등을 하면서 물이 차오르면...

개잡이, 낚시 등을 하면서 물이 차오르면 줄 미처 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최재근 경위는 "소태이도는 해수욕장에서 200m 떨어진 무인도로, 물이 들었을 때 바다물이 깊어 육지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다행히 순찰함으로 고립된 학생들을 발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경민기자 dss6116@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여행 문의 **1577-6511**

CCM Consumer Center Management  
2011년 1월 여행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획득

**"祝오 픈"**

●광산점 062) 952-7777 ●농성점 062) 434-8278 ●수송점 063) 464-5500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62) 228-6644

○입점가능매장: 광주 전남 /전북 롯데마트 및 로드샵

**무안출발 북경**

★3대읍선택포함 상해/항주/소주

출발일 8/1,6,8,13,15,18,20,22,27,29~

419,000 원부터

무안출발 상해

★3대읍선택포함 상해/항주/황산/삼청산

출발일 8/1,4,6,8,13,15,18,20,22,23,25,27~

499,000 원부터

무안출발 북해도

★대한항공 북해도 전세기★

북해도 (삿포로) 3일/4일

출발일 8/9, 8/10, 8/13, 8/16 (★단 4회)

1,290,000 원부터

무안출발 태국

방콕/파타야 4일/5일

출발일 7/31, 8/4, 8/7, 8/11 (★단 4회)

599,000 원부터

**유럽**

롯데호텔 인기상품

특급2박 / 동급호텔 1박

터키 완전일주 5~7 9일

1,890,000 원부터

**미주/캐나다**

롯데호텔 인기상품

캐나다 로키 시애틀 7일

1,790,000 원부터

**대양주 괌/사이판**

NEW!아일랜드기 포함

홍주 뉴질랜드 남섬 트래킹여행 10일

2,990,000 원부터

**동남아**

롯데호텔 인기상품

WONDER HILTON 푸켓 5일/6일

599,000 원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롯데호텔 인기상품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190,000 원부터

**북유럽**

롯데호텔 인기상품

노르웨이3대역요르트/조호르크르즈/알레그로속여행

리시아 북유럽 4국 12일

4,990,000 원부터

**하와이**

롯데호텔 인기상품

하와이 5일/6일

1,090,000 원부터

**중국**

롯데호텔 인기상품

백두산

심양 백두산 [서파] 4일/5일

599,000 원부터

●대표전화 1577-6511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주점, 매월점 ●전남점: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